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지질 및 지형경관 특성조사연구

최상훈^{*1}, 이인경¹, 허철호², 김성용³, 조호영⁴

¹충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²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연구원,

³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 ⁴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요약

국립공원은 수려한 지형경관 및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관리함으로써 그 설정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 각국은 국립공원들에 대하여 자연 그대로의 보존 관리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노력이 부가됨으로서 그 자연유산으로서 자산가치의 배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조사하는 목적은 1)국립공원 내 보존 관리되어야 할 자연자원을 파악하고, 2)분포와 생성특성을 분석하고, 3)자연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며, 4)이들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최선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대상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은 한반도 중부지역 서해안에 위치하여 있으며,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의 서익부 해안가에 위치하여 최북단의 태안읍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 해변에서부터 시작되어 태안읍 소원면, 근흥면, 남면과 안면도 (안면읍 안면과 고남면) 최남단까지의 서익부 해안과 일부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고시면적은 326.57km² 이며 우리나라 제 13호 국립공원으로 1978년 10월 20일 지정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의 지질은 태안과 안면도 지역 모두 선캄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와 이들을 관입한 중생대의 화성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지대는 대부분 중립 내지는 세립의 미사로 구성된 충적층으로 사빈해안과 해안사구 등으로 구성된 해변을 형성하고 있다. 변성·퇴적암류로는 태안군지역 서부에 주로 산출하여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북부지역에 산출하는 변성·퇴적암류로 구성된 서산층군과 태안군지역 동부에 주로 산출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중부지역에 산출하는 저변성 퇴적암류로 구성된 태안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변성퇴적암류인 서산층과 저변성 퇴적암류인 태안층을 관입 산출하는 화성암류는 주로 반상섬장암과 화강암, 그리고 이들을 관입한 흑운모화강암 및 암맥류 등이 산출되며, 부분적으로 관입경계를 잘 관찰 할 수 있는 형태로 산출되고 있다. 관입시기는 중생대 쥐라기로 사료된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지형경관은 환경부의 지형경관목록(1999)을 기준으로 주로 해안지

형(199개)에 속하며 13여 곳의 풍화지형 등 총 212개의 지형경관이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해안지형은 환경부의 지형경관목록에 총 44종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본 국립공원 내에는 21종의 해안지형이 분포한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서 확인된 해안지형들을 산출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사빈(모래해안) 32곳, 해안사구 22곳, 암석해안 20곳, 시스택 20곳, 해식애 16곳, 암맥 15곳, 자갈해안 11곳, 태안반도 지역의 사빈에 잘 발달된 연흔(10곳) 등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으며, 노치 등 다른 해안지형들은 10곳 미만의 산출 빈도를 보인다. 풍화지형으로는 매스무브먼트, 암석애버런치, 박리현상 등 5종이 확인되었다. 상기와 같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자연 유산인 지형경관들이 분포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사빈의 특성과 지질특성 등에 의하여 크게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부지역은 태안반도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학암포, 구례포, 천리포, 만리포, 파도리 및 연포 등의 해변이 위치하여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발달한 대규모 사빈과 해빈 및 해안사구 등의 해안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부지역은 태안반도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몽산포, 청포대 등의 대규모 사빈이 잘 발달되어 있어 역시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남부지역은 태안군 남쪽에 위치한 안면도지역 서쪽 해안으로 태안반도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으나 백사장, 삼봉, 방포, 꽃지 등의 해변이 발달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답사는 일정한 협의의 주제 또는 테마별 답사 보다는 지역별 코스 답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특정한 지질특성이나 지형경관이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 전체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공원의 중심이 긴 공원특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지역 또는 코스별 답사는 태안해안국립공원지역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 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시 할 수 있다. 각 지역·코스별로 다양한 암종 등의 지질 특성과 다양한 지형경관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학술적 측면을 포함하는 특색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관광자원의 활용도 가치가 매우 크다 하겠다. 이러한 각 지역별 답사코스는 하루 또는 1박2일 정도의 시간으로 효율적인 답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들 답사코스 중 중부 지역은 타 지역 코스에 비하여 더욱 다양한 지질 특성과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몽산포에서 마검포에 이르는 해변을 포함하고 있어 추천 대상 코스이다. 한편, 일부 해변에 위치한 산사면의 경우 풍화정도가 심하고 약선면 등이 발달되어 사면 붕괴가 진행되고 있거나 위험성이 있어 별도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